

원자재가격의 등락만 봐도 주가가 보인다라고???

김 태 호

원자재 가격의 변동이 국내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간단히 생각하면 원자재 가격이 상승한다는 것은 그만큼 해당 원자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의미일 것이다. 따라서 해당 산업에 대한 투자가 늘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원자재가격의 상승은 반드시 우리나라 경제에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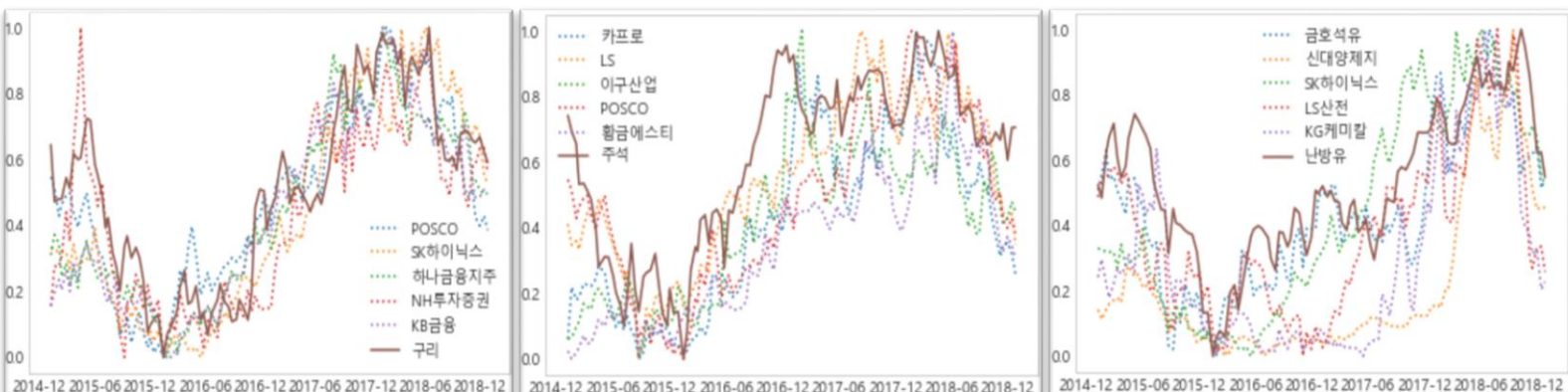


<출처 : 연말뉴스>

우리나라는 자원이 부족한 국가이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우리나라는 원자재를 가공하여 해외로 수출하는 대표적인 수출국가 중 하나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조업의 비중이 높다. 그리고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은 우리나라 제조업체들의 생산원가를 높이는 영향을 주게 된다. 그렇다면 원자재의 가격이 올라가면 제조업에는 어떠한 영향을 끼칠까?

많은 원자재들이 있지만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제조업에 영향을 줄만한 '구리, 주식, 난방유'의 등락과 관련된 주식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살펴보겠다.(KOSPI시장에서만 찾아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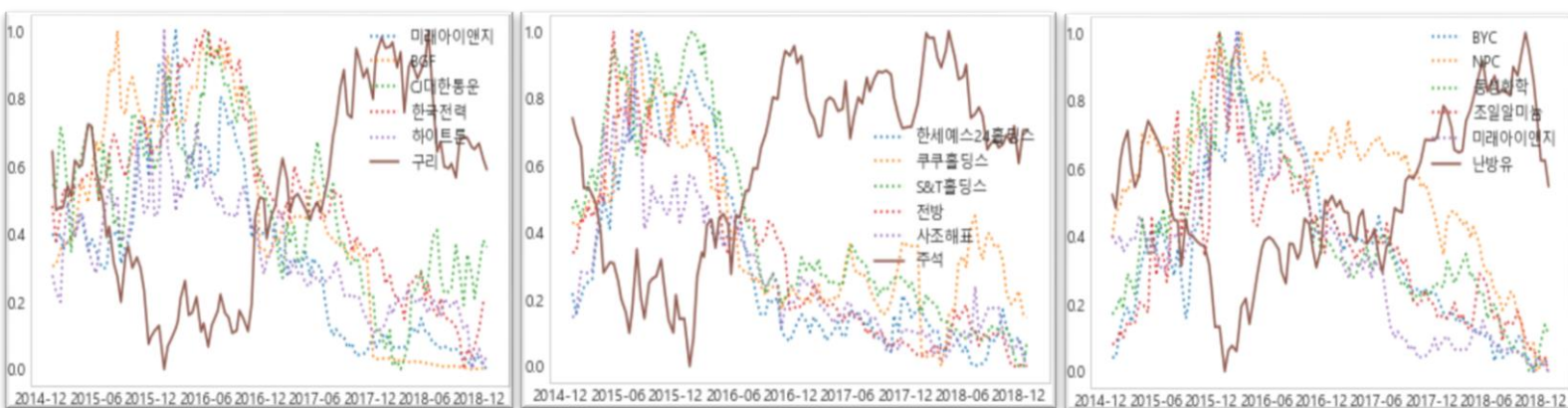
1) 원자재 가격과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 top5주식



Itemname	상관계수(구리)	Itemname	상관계수(주식)	Itemname	상관계수(난방유)
POSCO	0.890243	카프로	0.838551	금호석유	0.849365
SK하이닉스	0.885247	LS	0.837574	신대양제지	0.792479
하나금융지주	0.865733	이구산업	0.816536	SK 하이닉스	0.788649
NH투자증권	0.858859	POSCO	0.803074	LS 산전	0.786274
KB금융	0.854524	황금에스티	0.779738	KG 케미칼	0.779705

원자재의 가격과 양의 상관 관계를 갖는다는 뜻은 원자재의 가격이 상승하면 주가가 상승한다는 뜻이다. 이 말은 원자재의 가격이 상승할 때 해당 기업의 수익이 올라가는 구조일 때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선택한 원자재 가격과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주식들의 목록을 보면 일반적으로 상관이 없다고 생각되는 비 제조업 기업들도 포함이 되어있다. 예를 들면 구리의 경우 금융업 계통이 세가지나 포함이 되어 있는데 상당히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다. 다만 직접적인 연관은 없을지라도 예를 들어 금융회사에서 관련 선물이나 파생상품에 투자해서 이익을 보았을 수도 있다. 이는 사업보고서를 확인해야 할 내용이다. 여러 요소들이 작용하는 자본시장에서 일요인 상관분석은 큰 의미가 없을지도 모르나 요인과 요인 사이에 여러 요인들이 상호작용하여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생각된다.

2) 원자재 가격과 음의 상관관계를 갖는 top5주식



Itemname	상관계수(구리)	Itemname	상관계수(주석)	Itemname	상관계수(난방유)
미래아이앤지	0.890243	한세에스 24 홀딩스	-0.901462	BYC	-0.844172
BGF	0.885247	쿠쿠홀딩스	-0.885435	NPC	-0.827650
CJ대한통운	0.865733	S&T 홀딩스	-0.884960	동성화학	-0.823397
한국전력	0.858859	전방	-0.870637	조일알미늄	-0.821647
하이트론	0.854524	사조해표	-0.868335	미래아이앤지	-0.814216

원자재의 가격과 음의 상관 관계를 갖는다는 뜻은 원자재의 가격이 하락하면 주가가 상승한다는 뜻이다. 이 말은 원자재의 가격이 하락할 때 해당 기업의 수익이 올라가는 구조일 때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주로 제조업의 경우 원자재가격이 내려갈 경우 기업의 순이익은 올라가게 될 것이다. 실제로 원자재와 관련이 있는 기업들의 등락도 확인 할 수 있었으나 그렇지 않은 기업들도 다수 보였다. 위에서 말했듯이 정확한 연결고리를 생각해보지 않는 이상 일반적으로 생각하기 힘들다. 여러 요소들이 작용하는 자본시장에서 일요인 상관분석은 큰 의미가 없을지도 모르나 요인과 요인 사이에 여러 요인들이 상호작용하여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생각된다.

3) 결론

원자재가격의 등락과 주가의 직접적인 상관관계를 찾아보았다. 각 원자재마다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는 주식은 존재 했으나 해당 원자재와 해당 기업간의 연결고리를 알 수 없었다. 상관관계가 높고 등락이 비슷하게 이루어 졌다는 것은 알 수 있지만 이 알고리즘의 정확한 근거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내용을 근거로 함부로 투자하기에는 위험부담이 있을 것이다.